

2011. 9. 8.(목)

보도자료

2011년 9월 8일(목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이영미 과장(☎3400-2201)
전파관리과 방종석 사무관(☎3400-2220) jsbang0129@kcc.go.kr

제6차 한·일 전파감시 실무자회의 성공적으로 끝마쳐

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(소장 박윤현)는 일본 총무성과 ‘제6차 한·일 전파감시 실무자 회의’(“11.9.6~9.7)를 일본 히로시마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
‘한·일 전파감시 실무자 회의’는 양국의 전파감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2005년부터 순차로 개최하고 있으며, 양국은 이 회의를 통해 혼신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, 불법무선국 단속, 소출력·광대역 신호의 감시방법 및 기술정보의 교환 등 전파감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계속하여 왔다.

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5차 회의에서 합의한바 있는 부산전파관리소와 추고쿠종합통신국간의 전파감시 정보교환, 한국의 위성전파감시센터와 미우라전파감시센터간의 공동측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.

또한 ‘신고하지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’과 불법감청설비의 관리방법, 전파감시시스템 개발현황 등 전파·통신 기술 및 전파관리 정책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졌는데,

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행복 대한민국

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전파분야에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주어지지 않은 일본측은 우리나라의 유통·판매 등 현장단속업무와 관련한 법령, 그리고 단속방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. 차기회의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 끝.